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23일 (음력 3월 8일) 월요일

“與 압승 vs 野 선전”...지방선거 대진표 윤곽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분선 후보와 5개 구청장 경선 후보가 확정되고 야당이 이에 맞설 선수를 속속 결정하면서 6월 분선 대진표에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당의 압승이나 야당의 선전이 나자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정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지었다. 결선투표가 예상됐으나, 탈당 전력에 따른 10% 감산을 작용하고도 52.94%를 얻어 3차 단일후보인 강기정, 첫 여성 광역시장에 도전한 양향자 후보를 제치고 분선에 직행했다.

이로써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여당 주자인 이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되게 됐다. 옛 국민의당에서 분화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채

광주시장, 민주 이용섭 · 정의 나경채 · 민중 윤민호 확정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외부 영입 올인 불구 ‘후보난’

외부인사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심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볼 때 현실적으로 여당에 맞서기 버거운 만큼 시장선거는 접고 구청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전력을 쏟아붓자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구청장 선거전도 서서히 여·야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다. 최종 대진표는 민주당이 5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하는 내달 5일께 짜여질 전망이다.

우선 동구는 민주당의 경우 유일한 4인 경선지역이다. 정치인, 관료 출신, 여성, 청년 간 4파전이 현실화됐다. 임택 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신기 전 광주시기

획조정실장, 양혜령 치과병원장, 청년대표 강수훈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여기에 5개구 중 유일한 야당 청장인 김성한 청장이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영우 전 시의원이 출정 재비를 갖추고 있어 민주당-평화당-바른미래당 간 3자 대결이 유력시된다. 민주당 대세론과 막강한 현역프리미엄에 맞서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주선 의원의 파급 효과가 판세를 뒤흔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구는 광역의원 출신인 김보현·김영남 후보 서대석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민주당 경선에 올랐고, 이에 맞서 김

근태 전 의원 특보와 박해자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상일 전 민주통합개혁연대 광주전남사무처장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음주운전의 탓에 걸려 민주당 공천이 배제된 임우진 서구청장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무소속 바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에서는 김병내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용집 전 시의원, 임형진 전 광주시보 이 사장, 정재수 전 광주도시철도 분부장, 최진 동남갑위원장 등이 ‘민주당 티켓’을 놓고 경합 중인 가운데 중앙당 요청에 의해 컷오프 보류 지역으로 분류돼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다. 김귀봉 전 전남대 총동맹회 상임이사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송광은 청장의 3선 연임제한으로 무공공선이 된 북구는 민주당의 경우 단일화에 나선 문상필·조오성 전 시의원과 문인 전 행정부시장 간 3파전 양상인 가운데 후보 단일화 후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나갈 지 관심사다.

여기에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지낸 이은방 후보가 민주평화당 깃발을 들고 출전해 민주당 후보와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북구는 평화당 김경진, 최경환 의원 등 인지도 높은 의원들이 많고, 을 지역구 현역의원으로 버티고 있어 이들의 지원 사격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광산구는 김영록 광주세무사회 회장과 윤난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센터장, 윤봉근 전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경선 3파전에 나선 가운데 오랜 기간 비박표를 다져온 평화당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전 여부와 직접 구청장인 민형배 청장 조지표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야당의 도전이 쉽지 않았지만 큰 선거에 비해 비박민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 만큼 더 비박을 훔고 다녔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의외의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한탄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공세에 올인하며 어떤 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 한 안 후보는 자신이 여론조작의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안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펼친 MB(0)명백 이바타 공세 등이 드루킹과 연계됐던 것이라고 보고 당 안팎에서 분노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강공을 펴고 있다. 안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펼친 MB(0)명백 이바타 공세 등이 드루킹과 연계됐던 것이라고 보고 당 안팎에서 분노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강공을 펴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서은홍 기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신안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신안탈립 축제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 캠페인 아름다운 선거 613을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 “사회복지 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

오늘부터 6월10일까지, 400여곳 점검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시설 내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토록 돼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한 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 400여 곳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처분 관련 정보는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

른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보 조금 환수,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수법·미담 사례는 발굴·공유해 시설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비합당한 운영을 위해선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은홍 기자

The
20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

제20회
함평
2018. 4. 27. 금 ~ 5. 7. 일
함평엑스포공원, 함평천생태습지, 화양근린공원

www.hampyeong.go.kr/tour/ 문의 : 061-320-1784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Imagine your Korea